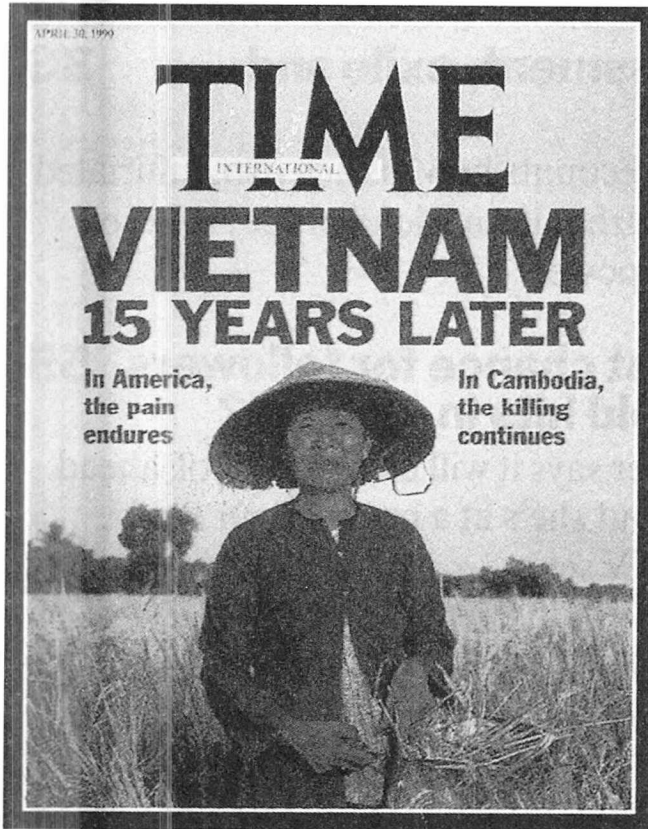


새롭게 조명되는 미국의 반전운동

자유주의 평화운동의 실상 다룬 「미국의 시련」



월남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최근의 미국언론.

베트남전쟁은 어느덧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가고 있지만 이 전쟁만큼 미국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전쟁도 없을 것이다. 베트남전쟁 당시의 반전운동은 하나의 혼란한 대중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10여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인들의 여론분열을 야기했다. 또한 그 운동의 규모와 역사적 성격에 비례해서 아직까지도 미국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국의 시련」(An American Ordeal - The Antiwar Movement of the Vietnam Era,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은 처음에는 툴레도대학 역사교수였던 차알스 드베네데티(Charles DeBenedetti)에 의해 그 초고가 씌어졌으나 1987년 그의 사망 이후 워턴버그대학의 역사교수인 차알스 채트필드

(Charles Chatfield)에 의해 완성된, 반전운동과 미국 정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연대기이다.

두 사람의 손을 거친 결과 그내용이 좀 지나치게 세부적이며 반복적인 흡은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반전운동의 실패와 좌절이 운동 내부의 분열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다수의 조직이나 개체간의 갈등, 그리고 전술상의 분파성 등이 표면화되면서 전개될 때는 항상 자유주의와 급진주의라는 두개의 대별되는 경향이 공존하게 된다. 「미국의 시련」은 바로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평화운동에 관해 베트남전쟁 이전의 상황과 1969년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사실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개입하

기 이전, 벌써 자유주의든 급진주의든 그 전략적 관점 및 목표의 차이는 있었지만 군비축소문제나 냉전의 종식 등과 같은 문제를 둘러싼 평화운동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반전논의를 형성하게 된다. 핵전쟁시의 대량과피라는 냉전의 위협, 동서의 긴장·대치상태를, 좋은 나라 대 나쁜 나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와 같은 전세계적 대립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포장된 이러한 논의는 미국내의 특정 정책간의 대립뿐 아니라 미국인의 가치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시련」은 전쟁에 관한 논쟁자체를 사회적·인권적 법률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한 존슨 정부 당시에 겪어야 했던 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자유주의 반전운동가들이 전면적인 논쟁을 펼칠 수 있는 전통적 정치경로가 현실적으로 통제당함으로써 거기서 이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반전운동의 아이러니로 남는 전쟁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반전운동자체에 대한 적대감간의 거리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반전운동의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탐색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전운동은 미국 젊은이들의 깊은 소외감, 흑인 민족주의와 여성해방 그리고 반문화적 소요로 표현되는 심각한 문화적 변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반전운동과 인권 및 학생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미국 사회의 흑인, 여성, 학생 그리고 빈민층 문제들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결과들은 반전운동 지도부의 지나친 유동성에 기인한다. 사실 많은 조직

들이 빈번하게 활동 방향을 변동시켰고, 새로운 대중적 조직들이 끊임없이 출현했는데, 1960년 몇십개에 불과하던 단체들이 1970년에 이르러서는 1200개가 넘는 연합체로 성장했다.

평화운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나간 단체로는 모성에 기초한 교육적 입장에서 전쟁을 비판하는 몇몇 여성단체들이 있어 왔는데 이 책은 이들 여성단체 지도부의 갈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시련」은 미국내의 반전운동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베트남전쟁의 후유증을 상기시키며, 10여년에 걸친 소비적인 전쟁을 종식시키고 마침내 한 세대를 규정한,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았던 '성공적인' 운동인 반전운동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련시장 공략하는 서구 출판사들

페레스트로이카의 열풍이 전세계에 파급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는 물론 이제 언론·출판계에도 변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한 예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련과 미국 합작형태의 신문이나 잡지, 또는 출판사 설립이다. '두개의 언어를 가진 우리'라는 뜻의 '위/뮈'(We/Mui)는 소련의 「이즈베스티아」(Izvestia)와 미국의 「뉴욕시티」(New York City)를 합친 이른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형태로서, 소련과 미국 양국 독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검열없이 간행되는 신문이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에서 각각 원고작성·편집되며 텍사스에서 인쇄되는 '위/뮈'는 소련에서는 루블로, 미국에서는 달러로 판매되고 있는데 1991년 한해에 약 백만부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신문은 5인의 베테랑 저널리스트들의 공동창작물로,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 저널리즘의

선구적 위치에 있는 것이며, 소련과 미국을 포함한 이 세계를 보도하는데 있어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신문은 소련의 실제적 에이즈 감염률로부터 소련체제의 전반적인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는 브레진스키의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비즈니스 관련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올 한해만 해도 10여개의 조인트 벤처 저널들이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의 신문·잡지 판매대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그로우힐사의 대변인인 크리스틴 섬머슨(Christine Summerson)은 "소련시장은 거대하면서도 굶주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오는 9월에 모스크바의 킹가(Kinga) 출판사와의 합작하에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의 소련어판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12개의 번역판 소련잡지와 신문들도 지난해 서구 신문판매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퍼가몬 미디어(Pergamon Media)는 런던에서 「모스크바 뉴스」(Moscow News)를 인쇄하기 시작했고, 지난 1월 영국에서 선보인 소련 타블로이드판 「아르구멘티 이 팩티」(Argumenty i Fakty)가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간행에 있어 서구 출판사들은 현재 소련법의 적용을 받는 준자본주의 기업 중의 하나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소련정부 기간공장에서 인쇄를 할 경우, 소련내에서의 고질적인 종이부족과 '공포스러운 정도로' 부실한 전화·컴퓨터 연락망, 그리고 까다로운 보급과정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광고주들의 부족 등은 실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또다른 장애물은 무역관행에 있어 소련식의 오랜 타성-특히 그들의 프로퍼젠더적인-에 쫓겨 않은 소련 저널리스트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서구 출판사들은 소련시장에 침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출판사들과 「펜트 하우스」(Pent-house)까지도 곧 소련에 진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고, 이 계획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낙천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 출판사들의 최대관심은 물론 소련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이윤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들 대다수의 의견은 더 늦기전에 합작출판을 시작해서 여하한 형태로든지 '선취권'을 터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동의 신념, 조지 마셜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마치 전후 이데올로기 간의 냉전시대를 비웃듯 급속한 다원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공산진영의 분해는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차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강의하는 한편 활발한 저술활동을 펴고 있는 에드 크레이(Ed Cray)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육군대장 조지 마셜」(General of The Army - George C. Marshall : Soldier and Statesman, New York : W.W. Norton & Company)은 권위있는 연구서이자 마셜의 인간적 면모와 공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마셜의 군사전략적·정치적 업적과 함께 과묵하며 자기훈련이 잘 되어있으면서, 엄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적인' 인간으로서의 마셜을 그려냄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조지 마셜은 역사가들이 그를 연구할수록 더욱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로, 이 점에서 미국 역사상의 인물들 가운데 조지 워싱턴과 필적한다. 마셜이 이토록 극찬되는 것은 그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예견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이는 마셜의 몇몇 전략상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어 마셜이 다른 많은 전략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941년 11월 일본이 공격을 해 올 경우 필리

능가하는 마셜의 현명한 통찰력에 주목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마셜은 독일을 훨씬 더 위험한 적으로 판단, 일본보다는 독일을 먼저 패배시키려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그는 영국해협을 건너는 기습공격이 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서 크레이는 미국의 모든 중요한 군 및 민간 지도자들 가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절박성에 대해 가장 결의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셜이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만일 이 기습공격을 좀 더 일찍 감행했다면 전쟁은 좀 더 일찍 끝났을 것이고 또한 무수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전후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크레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셜의 명성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로 그가 세계전쟁의 복잡성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해 아래 병참·행정·정치 및 외교문제들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요구되는 전면적인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가 역사적으로 마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마셜이 군사전략을 비롯해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성실한 신념에 기초한 자신의 세계관을 철저히 반영시켰다는 사실이다. 특히 마셜이 민간정치가 된 이후 이러한 색채는 더욱 짙어지는데, 그가 독일·이탈리아·일본에 대한 승리를 공산주의와의 새로운 전쟁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을 읽을 수 있다.

두 여류예술인이 들려주는 삶과 예술

전통적인 전기의 형식에서 벗어나 두 인물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색다른 전기물이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기작가 밀리센트 딜런(Millicent Dillon)이 최근에 선보인 「이집트, 그 이후」(after Egypt-Isadora duncan & Mary Cassatt, New York: E.P.Dutton)는 현대무용의 선구자로 우리에게 낯익은 이사도라 덩컨과 미국의 여류화가 메리 케세트의 생애를 마치 푸가풍의 이중주처럼 들려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사도라 덩컨(1922, 왼쪽)과 메리 케세트(1878년 자화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인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전기라는 통념을 깨고, 딜런은 이러한 정의는 단지 전기기술의 한 방법에 불과할 뿐,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한 딜런의 「이집트, 그 이후」는 시간의 추이에 따르지 않은 독특한 구성으로 얼핏 산만하고 비구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례로 회상장면에 등장하는 그 이미지들은 일관성 없이 갑작스런 위치이동을 하거나 때로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뒤섞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정환경이나 경력·사생활 등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면서 한결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전통 전기물들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한다.

딜런은 이번 전기에서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 간 두 여인, 그러나 결코 조우하지 않았던 두 여인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기 속의 화자는 계속해서 이 이집트로의 여행에 - 한 사람은 1910년에, 또 다른 한 사람은 1911년에 감행한 -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여행이 이 전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딜런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집트를 '블랙홀'로 상징하고 있는데, 즉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

키지만 다시 외부로 폭발하면서 '그 이후(after)'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이 덩컨이나 케세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사도라 덩컨은 무용에 전생을 걸었다. 그녀의 육체는 사랑과 모성, 그리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하려는 욕구로 충만되어 있었다. 반면 케세트는 '육체적 삶'을 거부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요소는 '빛'이었다. 여인과 어린이들을 그린 그녀의 수많은 초상화 속에서 아이가 없는 미혼여성들은 마치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재생시키기 위해 온 정열을 쏟아붓는 것같이 느껴진다.

당시 자유연애의 제창자이자 결혼 제도폐지론자, 그리고 자신의 정열과 재산의 '상비'가었던 덩컨은 '완전한' 보헤미안이었다. 대조적으로 케세트는 신중하게 그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적 방종에 반대했던,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상류 부르주아였다. 덩컨이 그녀의 충동적 성격과 '신화적' 행동으로 자신의 삶의 제약을 초월한 반면, 케세트는 현실적 실체(pragmatic reality)에 집착했다. 세부적인 일상사를 중요시했던 그녀는 자기 통제와 관련된 행동, 그리고 정직함을 지향했다.

이러한 상반된 성향때문에, 「이집트, 그 이후」는 두 여인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로서 하여금 덩컨과 케세트의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아이젠하워와 함께한 조지 마셜(오른쪽).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 중에서 오늘날의 이러한 흐름을 예견하고, 또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이상에 전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조지 마셜이야말로 이 몇 안되는 사람들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핀의 여러 요세들을 모두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든지, 전쟁 초기에 일본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진주만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점, 또는 전쟁 중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폭격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중폭격 등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크레이는 이러한 실책들을